

기독교청소년의 학업과 신앙의 통합을 위한 해석적 교리교육연구*

A Study of Interpretive Catechesis for the Integration of Schoolwork and Faith of Christian Youth

강미랑 (Mi Rang Kang)**

ABSTRACT

This article studies the education of the church that instills a new worldview and a story of hope through catechesis in the reality that school is distorted due to the prevailing worldview, and students suffer from academic stress and move away from faith. This study supports students to discover God's calling by interpreting the story of the Bible an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ir studies anew according to that calling to form a holistic faith in adolescence.

This study accepts the realm of study as the realm of God's reign and uses the Christian worldview to reconstruct students' world of schoolwork. In addition,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faith helps Christian youth develop their identity by integrating all relationships in their studies and life within the system of faith.

Adolescent catechesis should be able to explain the doctrines constructed from the Bible in connection with the daily interests of the students. In this respect, today's catechesis requires a worldview and lifeview interpretation, and can help students to understand the important life tasks in adolescence in a new biblical-doctrinal structure. I hope that the Korean church can prepare today's catechesis for youth by denomination or in a united effort so that they can build pillars of faith for their present and future. I propose that the catechesis in the church should be based on the historical-religious creed of the Reformed faith (Belgic Confession of Faith, Heidelberg Catechism, and the Canons of Dordt) and in

* 2022년 8월 12일 접수, 9월 21일 최종수정, 10월 6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7822)

** 로덴나무교회, 개혁주의신앙정체성 교육센터장 (Rodem Namu Church, Director of the Catechism Center),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로 51, mirang_kang@hanmail.net

the language and context applicable to today's youth.

First of all, in this paper, we focus on the Our World Belongs to God: A Contemporary Testimony, which contains biblical insights on modern issues of the 21st century, based on the religious education books of the historical Reformed Church(Belgic Confession of Faith, Hidelberg Catechesim, and the Cannons of Dordt), by the American CRC denomination, a descendant of the Dutch Reformed Church. This paper provides a model of catechesis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by using this Contemporary Testimony.

Key words: youth, schoolwork, faith, calling, interpretive catechesis, Christian

I. 들어가는 말

교회교육은 인간의 삶과 분리될 수 없고, 일생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게 하고, 그를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삶과 관계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전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정일웅, 2011:서문). 특히 세속화되고 다원화된 21세기 상황에서 교회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교육함이 없이는 교회와 교회 밖 일상의 삶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기독교 신앙전통을 오늘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해석하여 신자들이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순간 순간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다.

본고는 한국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겪는 고통과 좌절을 생각하며, 교회의 교육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적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시기를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문제들과 연결되는 교리교육 내용과 방법을 연구한다. 그리하여 학습 대상인 기독교 청소년들이 그들의 일상의 삶, 즉 학교나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매일의 삶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을 좌절시키는 세상의 이야기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깊이 심겨지도록 전통적 교수법인 교리교육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오늘날 교회는 다시 교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확고한 신앙을 중심으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논지이다.

청소년 신앙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회교육(강문규 2021 등), 청소년 영성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이미아 2014, 변영인 2013 등), 인성교육(이은아 2015, 한상진 2014 등), 신앙발달(강문규 2008, 등), 청소년 신앙형성을 위한 입교교육(강미랑 2021, 양승준 2013 등)과 청소년의 학업, 세계관(전병재 2019, 하희승 2009, 박상진 2008, 김희권 2008 등), 청소년 소명교육(전병재 2019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신앙교육(최진성, 2022)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신앙과 학업의 문제를 교리교육의 방법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최근 교리교육 교재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으나 개신교회의 교리교육은 다시 역사적 신앙 교육서(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등)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치자는 재발견의 차원에서 부흥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개신교회의 청소년 교리교육을 위한 연구 논문은 극히 드물다.

교리문답 교육은 초대교회로부터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는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교회의 교육 방법이었다. 칼빈도 초대

교회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여오던 이 교육 방법을 다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하였다. 이 단어는 가르침을 뜻하는 신약성경 헬라어 ‘카테케오(κατεχεω)’에서 파생되어 교리교수학(catechetics), 교리교육(catechesis)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방법론적으로 문답형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그들의 지식의 깊이를 측정하며 그들의 마음을 탐사하며 인격적인 신앙교육을 수행한다. 이 문고 답하는 방법으로 교회는 신앙의 핵심 내용들을 전수하여 온 것이다. 이 때 사용된 책들이 교리문답서(catechism)이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이 신앙교육 방법을 회복하여 루터도 소요리, 대요리문답을 써서 목회자, 평신도, 어린이들을 가르치도록 하였고, 칼빈과 후대의 여러 종교개혁자들도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신앙교육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회의 교육방식은 듣기와 말하기가 중심이 되는 교육인 교리문답 교육이었다(Van Dyken, 김희정 역 2012: 19-27).

종교개혁 이후 개혁주의 신앙교육서들을 가장 사랑하며 잘 가르쳐져 온 네덜란드 교회에서는 현대로 오면서 교육학의 발달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며 학생들의 세계에서 교회의 신앙의 핵심들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서들이 출간되어 왔다. 그럼에도 교회의 신앙교육으로서 교리교육의 기준은 교사와 학생들이 아니라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다(K.A. Schippers, 1982: 12). 교리교육은 항상 세례와 연결되고, 세례를 위한 교육,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교육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어린이 세례와 어린이 성찬 참여가 허용되면서 세례교육으로서의 교리교육은 약속과 초대 관계에서 어린이들이 자라나며 계속적으로 배우고 깨달아 가야함을 인식하게 한다. 현대의 교리교육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로 입문하는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중요한 특징과 교회가 학습공동체로서 평생 신앙을 훈련하고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신앙교육으로 의미를 확장시켜가고 있다(K.A. Schippers, 1982: 25-27).

패커와 패럿(Packer & Parrett, 조계광 역, 2010:40)은 교리교육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에 뿌리를 둔 믿음과 실천을 가르쳐 교리와 헌신과 규범과 신앙생활의 기쁨을 일깨워주는 교회의 사역(Packer & Parrett, 조계광 역, 2010:40)”으로 정의하고, 교리사역의 범주를 예비교리교육(초신자 교육), 정식교리교육(세례,입교자 교육), 지속적인 교리교육(계속적 성장 교육)으로 나눌 때(Packer & Parrett, 39) 본 연구는 지속적인 교리교육의 한 모범을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이 전통적 교리교육법이 오늘에도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오늘의 학업과 신앙의 고민도 성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교리교육에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북미주개혁교회(CRC 교단)의『현대신앙문서』를 청소년 교리교육 교재로 사용하며 학생으로서의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며 통찰을 얻는 교리교육 모델을 구성하는 이론 형성과정을 논술하고자 한다.『현대신앙문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역

사적 신앙교육서인 벨직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신조의 내용을 토대로 현대적 이슈들에 대한 성경적 통찰을 현대의 일상적 언어로 정리하고 있는 교육문서이다.

먼저 청소년들의 학업현장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들의 학업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적 차원에서 점검하였다. 그리고 나서 실천신학적 접근으로 학업과 신앙의 통합 이론을 통하여 신앙의 장소적 영역과 전인적, 포괄적 이해로 확장시킴으로 학업을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세상의 성공주의 거대담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회심하기 위한 훈련, 즉 교리교육의 대안을 제시한다. 교리교육을 통하여 학업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영향력을 갖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학창 시절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창조적 시간으로 해석하는 성경적 통찰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청소년들의 학업현장 이해

본고는 청소년들의 삶의 환경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그들의 신앙교육에 있어 위기를 파악함으로써 교회의 신학적 응답을 찾아 나가는 실천신학의 행동이론 연구이다(Heitink, 1999: 65).

1. 청소년들의 고통: 학업 스트레스의 근본적 원인

한국의 청소년들의 일반적 정체성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주 업무는 학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마저도 60% 이상이 시험 준비를 하는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0/01/202001221610558592f67c3fc824_1. (2022. 8. 5.)). 그런데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스트레스(하희승, 2009: 371-405)는 OECD 국가 중 1위, 행복지수는 꼴찌(<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20>. (2022. 8. 5.))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지금도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 원인을 자신의 개인적 상황으로 치부하며, 또는 치부 당하며 해마다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1>. (2022. 8. 5.)).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지난 2년간의 비정상적 학교 운영은 학교의 기능, 역할, 학업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했다. 가정들의 경제적 차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의

차이, 교사들의 매체사용 역량의 차이 등 학교가 원거리교육으로 채워줄 수 없는 다양성들이 드러나 학교와 교사와 학생들이 각각 자신들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런데 학교도 못 가고, 교회 예배조차 모여서 드리지 못하던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도 학생들은 끝까지 학원수업을 사수하며 공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이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공교육과 교회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된 것은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 입시경쟁이테올로기와 그로 인해 형성된 부모들과 학생들 자신의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김병재는 이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능력주의 문화”로 파악하고 이러한 능력주의적 사회공통의 인식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더욱 강화되어 교육에서도 개인의 성과를 중시하는 입시경쟁구조의 교육과정을 형성해왔다고 지적한다(김병재, 2022:90).

김희권은 한국의 중고등학교의 입시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근원적 원인은 국가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정책에 있다고 본다. 이 인적자원을 활용한 경제개발 성공주의가 대한민국 학교 교육의 목적을 흔들며 비정상적인 입시경쟁을 조장하게 되고, 그것이 사교육시장의 거대화를 낳았다. 학교는 국가가 지향하는 경제적 선진국을 이루어줄 인재 양성소가 되어 입시경쟁이테올로기라는 지배적 담론을 사회에, 가정에 퍼뜨렸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의 ‘현실적’ 교육목표는 대학입시를 향하고, 대학은 더 이상 자유로운 교양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곧바로 대기업 취업,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직장을 얻기 위한 스펙으로서 역할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을 고용한 대기업들을 통해 생산한 소비재들로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세계 속에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경제선진국 진출의 꿈이 국가의 교육목적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의 교육목적과 방향을 왜곡시켜왔다.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관이 학교교육을 대기업 취업, 더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일자리를 추구하기 위한 수월성 경쟁, 서열화로 변질시켰다(김희권, 2008:1-6).

점점 더 과열되는 국제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경쟁은 ‘국가 경쟁력 신장’에 집중되어 있고 국제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사람이 곧 자본’이라는 ‘인적 자본’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1980년대 ‘수월성(excellence)’교육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국가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8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에서 “인적자원”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교육과 인적자본/인재양성, 그리고 국가발전 담론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도구적 지식 습득을 둘러싼 경쟁은 국가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과정이 되었다(이은아, 2015:235-255).

인간의 교육목적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에 초점 맞춰지면서 학교는 더 이상 학생들의 전인적 성품과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장, 우정과 사회적 관계성을 배우는 공동체성 훈련의 장 이라기보다,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발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처럼, 판매를 위해 특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수농가처럼 상품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등급 매기고, 경쟁하게 하는 경제지상주의 시장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경제적 성장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온 많은 한국교회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에 둔감해져 버렸다. 그들을 위한 학력스펙과 직장, 부동산을 준비하느라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전수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묻게 된다. 이제 한국교회는 문화적, 물질적 축복만이 아닌, 다시 교육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성경의 이야기로 돌이키는 회심이 필요하다.

2. 학생들의 학업현장에 필요한 소망의 이야기

교회는 먼저 우리 학생들이 학업경쟁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린양들을 새로운 풀밭으로 인도해주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다. 마이클 고힌, 크레이그 바르톨로뮤(Goheen & Bartholomew)는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에서 그 포괄적 메타내러티브를 자유시장경제 내러티브라고 하며 현대 세계가 실행한 가장 뿌리 깊은 세속화의 하나가 소비주의 문화라고 지적했다. 어떤 전통이나 보편적 가치가 아닌 기업이 정한 가치관에 의해 각자의 소비 능력에 따라 사람의 위상이 정해지는 무서운 사회가 되었다. 이 범세계적 자본주의 극단의 소비지상주의 세계관은 인간을 경제적 재화의 생산성으로 평가하며, 인간 소외를 가져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Goheen & Bartholomew, 윤종석 역, 2011: 246-252).

그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섞여있겠지만, 이제 그 세상의 광풍 같은 이야기들을 성경이 제시하는 본래적 세상과 인간과 역사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로 새롭게 해주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전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규범(New Normal)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20세기 이래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경제, 사회, 정치 구조를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때 교회교육은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에 발맞춰 기술 발전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숨통을 열어 주는 ‘살리는’ 교육, 생명의 이야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기독교소년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지배적 세계관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시는 성경의 이야기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여기에 교리교육의 자리가 있다고 본다. 예수의 복음도 로마제국의 강력한 세계관 속에서 작은 무리들에 의해 전파되고, 자라났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야기에 전인적 삶을 드렸다. 그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헌신해서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와 제국과 세계를 향해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 쉽지 않은 세계관의 전환 사역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표면적 교육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과 손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인적 교리교육이 필요하다. 교리교육은 지식 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신앙의 기둥을 마음 깊이 세우는 말씀에의 순종훈련이다. 교리교육은 또한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의 전수라는 측면에서 관계적이고 공동체의 사역이다. 나와 신앙의 공동체가 가진 세계관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사이의 충돌에서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신앙정체성 훈련이자, 세상의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리해내는 비판적 작업이다. 또한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세상의 가치관을 들춰내는 정직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재구성하는 생각과 가치관의 거듭남의 사역이다.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없이는 회개와 거듭남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다. 세계관의 재구조화에 이르도록 성경적 교리체계가 세워져야 하는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이고, 오늘의 학생들의 세계로 신앙의 전통을 풀어 해석해주어야 하는 해석적 작업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교회는 교리교육이 없이는 결코 보존될 수 없다고 했다(Packer & Parrett, 조계광 역, 2010: 30). 오늘의 학생들의 상황에 성경의 핵심 진리를 해석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주는 교리교육을 필자는 ‘이야기 해석적 교리교육’이라 하며 성경공부를 통해 청소년의 신앙적 정체성 형성을 돕고자 한다(강미랑, 2011:311-34).

III. 학업과 신앙의 통합을 위한 교회의 신앙교육

1. 학업도 신앙의 영역으로 통합시킨 개혁신앙

교회의 교육에서 학교에서의 생활을 신앙의 측면에서 다뤄주지 못해온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된 영역의 구분인 것 같다. 김희권(2008: 6)은 “우리 교회는 죽어서 가는 천당 이야기만 너무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벌써 죽은 자처럼, 곧 음부에 떨어진 귀신처럼 참다운 삶을 박탈당한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여야 한다.”며 생명을 살리는 신앙교육을 촉구한

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은 교육이 구현하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의 교육현실에 대해 어떠한 개혁의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한국의 초대교회들은 근대 한국의 교육에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사회개혁, 인간 평등가치, 민중교육을 위해 힘썼으나, 오늘의 현대교회는 교육의 가치회복을 위해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회와 기독교학교도 현 사회의 무한경쟁주의적 국가주의 교육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한편 신앙의 영역에 대한 이원론에 스스로 빠져있는 지도 모르겠다.

포스트모더니즘 세계를 살아가며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는 거대 담론보다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개념이 작은 행복을 일구어내는 좋은 측면이 있다. 여성주의 신학이 발달하면서 작은 일상의 소중함 등이 발견되고, 신학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교회의 예전적 삶을 일상의 언어로 표현한 워런(Tish H. Warren, 2018)의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신자들은 주일 한 시간만 예배하는 신자로 자신의 신앙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성숙해져서 매일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신앙의 영역을 확장하며 신자로 살아가야 한다.

청소년부에서 경험하는 오늘의 학생들의 기도 제목은 주로 ‘시험 잘 보는 것, 공부에 집중하기’ 등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남과 북의 통일, 지구 생태계 보존 등의 거시적인 기도 제목과는 거리가 먼 눈앞에 놓인 시험이 가장 큰 산이고, 실존적 문제이다. 이것이 그들의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제목이다. 그렇다면 시험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 성경적 통찰은 어떻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시험을 보아야 하고, 어떠한 태도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등등 그들의 실존적 필요와 신앙교육을 연결시켜 줄 때 교육은 효과적일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가 교회 밖의 생활을 세속으로 생각하도록 이원화해온 것을 개혁하여, 일상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영역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들은 신자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직업들, 은사들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격려했다.

특히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칼빈주의적 신앙이 학문의 정상적인 발전을 억눌렀던 중세적 세계관으로부터 학문을 해방하여, 죄가 학문에 작용하여 완전히 잘못된 지식을 낳지 않도록 억제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교리를 통해 학문을 원래 고유한 영역으로 회복시켰다’고 강조한다(최용준, 2021: 314-315).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 신학과 세계관에 의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

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자였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나 정치의 구조, 교육의 구조까지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집단들이 교육의 기관을 장악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인본주의 세계관 아래서 모든 학문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카이퍼는 입법투쟁과 정치적으로 맞서서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반세기 동안의 정치활동과 교육투쟁의 결과요 열매로 네덜란드 정부는 1917년 헌법을 개정하고 교육정책을 확립했다(정성구, 2010: 101-2).

카이퍼는 교육에 있어서 신앙을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자고 건의했다. 부모의 신앙과 세계관에 따라 학교교육을 선택하고, 국가는 가난한 부모들이 재정적으로 그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세금이 공교육뿐 아니라 사립학교와 가난한 부모들의 교육비를 지급하는데도 쓰여야 함을 주장했다(정성구, 2010: 104-106).

카이퍼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칼빈주의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주의 교육사상은 이원론을 거부한다. 우주적이며 삶의 전체성을 강조한다. 둘째, 청지기로서의 인간소명을 강조한다. 셋째, 하나님 중심사상이다. 넷째, 인간 존재에 대한 바른 대답이다. 인간은 죄로 타락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인간의 내부에 ‘종교적 자아’와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전제가 된다(정성구, 2010: 110-111).

한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꾸준히 기독교 대안교육 운동들이 있어왔다.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전인적 신앙과 학업의 통합을 위해 학교 퇴사를 결정하시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시는 기독교 교사들이 있었고, 자신이 속한 학교에 계시면서 좋은 교사운동을 벌여 오신 선생님들, 그리고 전국 교회들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독교 학교 설립, 기독교학부모들이 모여 자녀들을 위한 기독교대안학교 설립, 한국의 선교 초기부터 있었던 미션스쿨들의 예배와 인격적 교육으로 인한 기독교적 영향력,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학교교사와 학부모들을 향한 기독교교육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교육에서의 기독교사들의 영향력 등 다양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에 대안교육법을 상정하고, 교육부나 지자체에 기독교적 학업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들도 있다. 더 나아가 네덜란드의 학교 투쟁과 같은 제도적 개혁이 한국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러한 기독교 교육운동의 전초기지가 되어 성경의 스토리로 교사와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복음으로 생명과 소망을 공급하는 오아시스이다. 교회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영역도 하나님의 것임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2. 의미를 추구하는 포괄적 신앙이해와 교회교육

현대의 다원화된 세계에서 교회가 청소년에게 일상의 삶과 연결되는 신앙을 교육하고, 그 성장과 발달을 살피는데 있어서는 제임스 파울러 (James Fowler 1940-2015)의 포괄적인 신앙이해는 요긴하다. 그의 신앙발달이론은 기독교교육 연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며 동시에 부분적으로 이해하던 신앙의 의미를 전인적인 신앙개념으로 확장시켜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원론적 신앙이해를 극복하고 전인적 관점에서 개개인의 일평생 동안 일어나는 믿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할 것을 도전한다(강문규, 2008:49-70).

파울러의 신앙발달이론에서 그는 신앙이 일평생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 성장의 의미는 삶의 의미와 직결된다. 교육자와 목회자들이 청소년의 신앙이 일평생의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에게 신앙의 성장이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고, 그 내용에 대한 방식과 태도도 강화되는 질적인 변화를 함께 말한다(박원호, 1996: 8-9).

파울러는 신앙을 우리 삶의 상황들에 의미를 배우고, 찾고 제공하는 역동적이고, 존재론적 자세(dynamic existential stance), 방법이라고 말한다(Fowler, 1981:92). 이러한 삶과 직결된 역동적 배움으로써의 신앙의 의미는 청소년들의 학업을 신앙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수 있는 개념이다.

교회교육의 중심은 신앙교육에 있다. 신앙을 지식차원에서 전달하는데 급급했던, 또는 감성 차원에서 자극해왔던 교회의 청소년 신앙교육은 파울러의 이론에 의해 전인에 관계하며 일평생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신앙 성숙을 향한 교육으로 준비될 수 있다.

파울러는 신앙의 구조를 7가지의 작은 요소들로 설명하는데, 이 요소들은 교회의 청소년 정체성 교육에 있어서 유의미하다. 첫째로 논리의 형태는 신앙이 갖고 있는 사고와 판단의 형태에 초점을 둔다. 신앙의 단계가 충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능력도 이에 상응하여 발달되어야 한다.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로서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에 크게 의지한다. 더구나 신앙에는 지식, 신조, 교리와 같은 면들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논리적 면들이 충분히 발달하여 신앙의 균형을 돕는다(박원호, 1996: 53). 청소년기의 신앙형성에 있어서 성경적 논리, 사고, 판단력, 분별력은 교리교육이 지향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두 번째는 관점 채택의 요소이다. 세 번째 요소는 도덕적 판단의 형태, 즉 신앙이 갖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다. 넷째 요소는 사회의식의 테두리이다. 다섯 번째 요소는 권위의 장소이다. 이것은 신앙이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의 근거를 말한다. 여섯 번째 요소는 세계관의 형태이다. 우리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일된 전체, 즉 세계관으로 묶으려 한다. 각 개인이 처해있는

가장 포괄적인 삶의 테두리, 또는 의미의 영역을 말한다. 이 세계관을 성경적 이야기로 재구조화하는 일이 기독교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교회가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일곱 번째 요소로 상징적 기능은 신앙의 상징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해를 말한다. 신앙은 상징들을 통해서 경험이나 논리가 수용할 수 없는 영역들을 표현한다. 신앙은 이상의 7가지 요소들이 그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로 묶여 있다. 이 여러 요소들이 함께 성장하며 발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구조 이해는 교회의 신앙교육이 균형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해준다(박원호, 1996: 51-59).

파울리의 신앙 발달단계 이론은 우리의 신앙이 자신과 타자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앞에서 다른 여러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선형으로 진행함을 말한다. 이러한 신앙의 발달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된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교회의 교육적 역할의 자리가 있고, 교리교육도 건강한 신앙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파울리가 생각하는 교육모델은 고대 희랍에서 포괄적 교육과 종합적 훈련을 통해 도시국가의 민주시민을 형성했던 ‘파이데이아’이다. 청소년의 전인적 신앙 성장과 건강한 신앙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교리교육과 함께 말씀 선포와 예식과 교제와 섬김 모든 교회의 활동들이 제공되어야 함을 암시한다(사미자, 2017: 232-240).

청소년기 신앙발달에 있어서 개인의 경험이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확장된다. 가정을 넘어서서 학교, 일터, 또래 집단, 거리, 대중매체 등의 환경이 포함된다. 다양한 집단을 경험함으로써 신앙은 정리되며 종합되어야 한다. 이 시기에는 논리적 사고가 성숙하게 되고, 관점 채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점차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느낌, 생각, 관점, 기대에 민감해지며 이것이 자신의 신앙이나 도덕, 정체 형성의 기초가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시기의 신앙을 동조의 신앙단계(a stage of conformity)라고 한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 정체로서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이다. 어린이와 어른 간의 전이적인 단계에서 오는 자기 혼란,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다가오는 자기 역할의 정체(identity)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신앙에 대해서도 깊은 인식이나 반성 없이 자기가 속한 신앙집단에 의존하는 인습적 신앙이라고 한다(박원호, 1996:70-91).

교회의 청소년들도 일반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세상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이 교회에 와서 교리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와 함께 성경적 세계관을 학습해 나가게 되면 교회가 제시하는 신앙으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러한 신앙공동체의 신앙에 의존하는 인습적 신앙의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개혁교회는 교리교육을 해왔던 것이다. 그들의 신앙을 말씀으로 체계화하고, 중요한 이야기의 기둥을 세워주었던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단계의 5단계인 자아 정체 대 정체의 혼동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정신적, 성적, 심리적 변화와 급속한 신체적 변화로 청소년들은 거의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아를 찾기 위해 자신의 자질과 동시에 사회의 기대와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요구받으며 정체성 발달과 반면 고통, 정체성 혼동을 겪게 된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사회적 환경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확고한 정체성이 형성되고, 미래의 역할 모델들을 찾을 수 있고, 그 공동체에 헌신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조건에서 그들이 미래의 성인으로서의 일과 사랑과 사회정치적 모든 상태들을 찾기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고조될 수 있다. 이 단계의 위험성은 역할 혼동이다(Fowler, 1981: 76-77).

청소년기에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학교나 학원 동료 또는 교회 등의 또래 관계에서 상처를 경험하기도 한다. 간단한 말 한마디에도 그들은 신체적, 정서적 큰 상처를 입고 정체성의 혼동을 겪게 되며, 공동체를 떠나가기도 한다. 반면, 교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지지해줄 때 그들은 다른 곳에서의 상처를 극복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청소년의 신앙과 정체성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 신앙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의 언어사용, 태도부터 교육활동과 내용구성에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실천신학자로서 파울러는 1991년도에 출판된 『새로운 창조 세계의 형성』(Weaving the New Creation: Stages of Faith and the Public Church)에서 21세기 교회의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모습을 전망하면서 기독교의 중심 이야기들을 새롭게 해석하며 제시한다. 7가지 중심 이야기는 1)태초에, 2) 창조, 3) 타락, 4) 해방과 계약, 그리고 유수, 5) 성육신, 6) 교회, 7) 사랑과 정의의 공익(Commonwealth of Love and Justice) 으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파울러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기독교적 이야기와 비전의 소개, 형성, 그리고 구체화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파울러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 기초로 놓아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 등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기초 이야기들을 청소년들의 삶의 상황으로 해석해주어 그들의 정체성, 세계관을 형성하게 돕고, 그들이 이 성경이야기들을 신뢰하고, 그에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교회교육은 역할 할 수 있다. 신앙교육은 바로 신앙 중심이야기의 소개와 형성, 그리고 구체화, 생활화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원호, 1996: 223-227).

3. 학업과 신앙을 연결하는 기독교 세계관적 소명교육

청소년 교리교육에 앞서 학생들이 학업과 신앙을 연결 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학업에 대한 성경적 의미, 기독교적 의미를 교회가 다뤄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청소년들이 사회 환경적 요소와 발달 단계상의 자아실현 욕구에서 자신들의 일로서의 학업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업은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배움의 시기의 학생들의 일이다. 꼭 필요한 배움이라서 즐겁고, 유익한 과정을 따라 이루어져 배우고, 깨닫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입시가 전쟁으로 과열되고 학업의 방향이 성공지상주의로 치우치면서 그 목적의 방향성을 잃게 되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교 교육만 아니라 교회교육, 가정교육까지 심각히 왜곡시키고 있다.

박상진은 한국교회의 협소한 신앙이해가 학생들의 학업과 입시를 세속의 영역으로 분리해옴으로 입시 문제를 기독교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학생들의 전인적 삶이 신앙과 관련되므로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가 모두 기독교교육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상진 외 3, 2008: 15). 그는 입시 이데올로기를 기독교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소명의 관점에서, 은사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관점에서 탁월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을 제공하며, 기독교사와 학부모들이 먼저 준비되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섬길 것을 촉구한다(박상진, 2008: 99-129).

전병재는 학업을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보며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찾아간다. 그는 중·고등학생의 학업은 직업은 아니나 학업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한 청소년의 일이고, 학업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청소년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청지기직(stewardship)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 교회 내 청소년은 학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정리한다(전병재, 2019: 422).

기독교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신앙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개념은 “소명”이다. 교회의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소명교육을 제공했다면, 매우 고무적이라고 본다. 그런데 소명의 의미는 미래의 직업과 연관된 개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와 연관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소명의 의미에 대해 교회로의 부르심, 우리의 삶의 처지로의 부르심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개한다. 즉 소명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직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관계된 말이다. 칼빈 또한 소명을 신자들의 모든 삶과 연결시켰다. 칼빈에게 있어서 소명이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존재 자체와 그 일 자체를 하도록 부름 받음을 뜻한다(전병재, 2019: 431).

본래적 학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일로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학업의 목적, 방향 그리고 문화가 왜곡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지역 교회 내 청소년의 학업은 소명자의 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회복된 학업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행위를 포괄하는 삶의 방식 안에서 이해되어지며 소명자로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 즉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구조에서 학업을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청소년 교육은 학업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한 소명의식, 소명자로서의 정체성을 교육해야함을 제안한다(전병재, 2019: 515-447).

미국 도르트 대학의 심재승 교수는 미국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기독교철학 교수로서 방학 때마다 한국에 오셔서 청소년 캠프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들이 학업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하고 계신다. 그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넓은 이야기 안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구성해가도록 인도한다(고신뉴스KNC (<http://www.kosinnews.com>)).

또한 심재승은 [기독교 교육 선언: 어린이들로 내게 오게 하라]와 이대부속초등학교 교사들이 실제 활용한 내용을 포함한 [교사 가이드북](심재승/이대부속초등학교 공저, 2012)에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창조, 타락, 구속의 순서로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했다. 그 책에서는 어린이들의 실제 삶의 환경인 학교, 공부, 일, 놀이, 친구, 가족 등의 주제에 관련해 설명한다. 전체의 내용은 도르트 대학교에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해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 체제(Educational Framework)를 응용했는데, 그것은 ‘기독교적 영성의 배양 →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세계의 구조 → 창조 세계의 관리와 발전 → 봉사하는 삶의 양식’이라는 순서로 구성된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공부하고, 노는 학생들의 삶을 설명한다.

그는 한국 사회의 환경이 기독교적이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사회뿐 아니라 기독교 커뮤니티도 무한경쟁과 물질적인 성공으로 정의되는 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앙은 개인적이고 영적인 영역으로 제한되고, 교육은 세상의 영역으로 거기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추구하게 됨을 지적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근본적으로 삶과 교육에 관련되고, 성경과 기독교 신앙 자체가 자녀의 신앙의 삶을 교육하기를 명령하신다면 교회는 공교육, 즉 학교교육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세상과 인간 삶을 조망하는 시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한다(에베소서 5:15~20). “구속된 삶이 삶 전체에 살아져야하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에서 공공성을 가지며,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공공적인 책임을 가진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것이 기독교 교육), 그 아는 대로 살아야 하는 (그것이 기독교적인 삶) 정당성을 역설한다.”(심재승, 2021)

교회의 전통적 교리교육 방식이 요리문답서의 내용을 인식시키는 정도에서만 머물고, 학생들의 학교와 활동의 영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며 해석하는 작업이 없이 통과의례로만 사용된다면, 그리고 경건훈련이 매일의 삶을 위한 해석적 전망을 주지 못한다면, 교회교육은 물질만능, 입시경쟁, 과학주의가 지배하는 공교육 세상에서 기독교 청소년들의 삶에서 영향력을 잃고 말 것이다.

심재승(2021)은 기독교인의 공교육에서의 학업도 기독교세계관을 교육하여 신앙의 영역으로 세워야 할 것임을 말한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세상에 세우는 것이다. 우선은 사람의 형성이고, 둘째는 진리와 지식을 갖추어 하나님의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다.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나 죄로 인해 망가졌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사람, 거듭나서 새로워진 인간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에 근거해 한 어린이의 소중함, 인간다운 올바른 인성, 인품, 개성, 그리고 소망과 꿈에 관해 어린이를 교육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해 배우는 진리와 지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을 살게 하는 방편이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섬기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아는 것, 교육과 공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이고, 지식은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직업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현장이기에 직업을 소명이라고 부른다.”(심재승, 월드뷰 2021).

교회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학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로서보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자신들의 구체적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명 이해는 성경교육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

성경을 오늘날 청소년의 학업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성경의 세계와 현대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며 성경의 참된 이야기로부터 인생의 의미와 학문활동을 수행하는 소명을 제시받을 수 있고, 성경의 이야기를 세계관의 관점에서 정리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청소년의 학업의 의미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Goheen & Bartholomew, 2011: 338).

또한 공교육이 가진 세계관적 이야기를 잘 분석하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배우는 성경적 세계관의 통찰로 학업의 목적, 내용, 과정들을 재정리하여, 학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임을 이해할 수 있다. 주변 문화, 한국 사회가 주입하는 메타 이야기가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 배운 성경적 이야기와 다름을 깨닫고, 개혁하고자 하는 저항적 헌신과, 삶으로 성경의 스토리를 증명하며 그것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전하는 증언적 나의 삶을 구성하며, 소명으로서 학업을 구성하기에 이르길 준비하자(Goheen & Bartholomew, 2011: 41).

교회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성경이야기를 가르쳐서 그들의 삶을 형성하도록, 그들의 정체성의 원천이 되고, 그들이 모방하고자 하는 삶의 이상들을 성경으로부터 발견하도록 자주, 정확히 들려주어야 한다. 또한 스스로 성경 읽는 독자가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의 삶에도, 학업의 목적, 방향, 그들의 진로에도 성경의 통찰들이 영향력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접하는 다른 이야기들과 부딪칠 때 자신의 신앙공동체의 이야기에 강한 헌신과 신뢰가 있어야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의 이야기들에 도전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흔들림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고리교육은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신앙고백이 되도록, 성경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의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

IV. 신앙과 학업을 통합하는 해석적 교리교육 제안

1. 오늘의 교리교육 내용 선택 - 개혁신학을 현대에 적용한 [현대 신앙 문서]

본고에서는 개혁주의 신앙교육 전통에서 역사적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교리교육의 내용으로 오늘의 청소년들이 학업과 신앙을 통합할 수 있는 성경적 체계, 세계관을 제공해줄 수 있는 현대적 신앙표현 문서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 모델로서 선택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현대 신앙 문서]는 CRC교단(북미주개혁교회)의 신앙문서로서 개혁주의 신앙고백인 벨직신앙고백, 도르트신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기초해서 교회의 신앙을 오늘날의 언어로 재작성한 문서이다. 이것은 시대에 적합하게 표현된 문서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논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는 성격으로 신앙고백이 아닌 '신앙문서'로 명한다(미국 CRC교단, 심재승역, 2008: 머리말).¹ 한국교회의 교단들도 개혁교회의 역사적 신앙고백서들을 기초로 하여 각 교단의 신앙을 반영하고, 전문적 위원회를 조직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현시대의 문제들을 성경적 통찰로 답해줄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교리문답 문서들이 제작되길 기대해보면서 우선 이 미국개혁교단의 신앙문서를 학생들의 교리교육 교재로 사용해 보고자 한다.

이 [현대 신앙 문서]와 그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미국 도르트대학의 심재승 교수가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이대부속초등학교 교사들과 함께 연구하여 작성한 [기독교 교육선언: 교사 가이드북]을 청소년을 위한 학업 소명을 중심으로 한 교리교육의 내용과 교수법의 참고 자료로 제안한다.

이 정제된 문서의 신앙의 표현들 또한 각 교회의 청소년들의 상황, 그들의 세계에서 시작하여, 본문내용 연구로 들어가고, 다시 학생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해석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은 함께 묻고, 답하며 삶의 문제들로 깊이 들어가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응답하는 교리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교육의 실체에 있어서 이러한 교리교육을 실행하기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1) 이 신앙문서(Our World Belongs to God: Contemporary Testimony)는 1986년에 작성되었는데, 20년이 지난 후 총회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다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간의 다수의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의 위원회, 미국 칼빈신학교 교수들의 피드백을 거쳐 2008년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https://www.crcna.org/welcome/beliefs/contemporary-testimony/our-world-belongs-god?language=ko> (내용전문 참조)

시간의 문제이다. 교회의 한 시간 주일예배 후 각각 다른 일정들로 흩어지기 쉬운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새롭게 사용하게 된 온택트 교육방식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학생들이 가능한 평일이나 주말 저녁시간, 또는 어떤 시간대라도 실시간 쌍방향 소통인 줌(Zoom)으로 편리하게 교리교육 할 수 있다. 양금희는 코로나19시대의 대면교육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온택트 방법들이 대면교육이 대신할 수 없는 독자적 경험의 영역 및 교육적 힘을 가진 기독교교육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양금희, 2021: 41-76).

2. [현대 신앙 문서] 1-58문의 개혁주의 세계관적 구성

이 문서의 서문은 “1.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기쁨과 믿음으로 선언한다.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시작한다.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청소년 교리교육을 시작할 때 암담한 현실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 신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과 그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우리가 현재 모든 교육제도를 바꾸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의 환경 속에서 창조주, 구속주, 새창조의 주님으로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이 현대적 신앙교육서의 교리적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보이도록 요약한 것이다.

Table 1. Outline of *Our World Belongs to God: Contemporary Testimony*

현대신앙문서	기독교교육선언 (어린이대상)
서문: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언약	성경
창조(7-12): 세상은 우리의 집, 예배처, 일과 놀이, 교제의 공간, 하나님 형상, 세상의 청지기 소명 인류의 다양성-모두 하나님의 대리인, 생명보호	선한창조
타락(13-17): 불순종, 세상이 고통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인간관계들 깨어짐	죄로 망가진 세상
구속(18-22): 구속의 역사, 언약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23-27):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심, 순종하심,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이루심, 중보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변호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28-30): 그리스도와 연합, 은사들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도록.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31-33):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속된 삶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34-40):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생명, 성례를 통해 은혜를 누리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41-54)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이웃과 세상의 삶에서 가난한 자, 약자 돌봄 부패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개혁의 소명 생명존중, 남녀평등, 쾌락을 따르지 않음 사람들과의 약속에도 충실 47.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학교와 교육,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가도록,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은사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학교와 교육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공정한 임금, 상호존중 재물과 시간을 드린 봉사	일
휴식과 여가, 과학기술 -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생명존중 생태계보호, 환경보호 -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 정부-인권과 자유보장, 공의 실천, 언론, 노동, 종교의 자유보장 국제사회 평화위한 노력	놀이
새창조: 하나님의 다스리심, 몸의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나라 소망	소망

3. 교회 청소년 교리교육 교수계획

1) 교리교육 대상 선정

- ① 입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교리교육(12주)(강미랑, 2020: 269-309.)
- ② 입교 후 계속적 신앙 성장을 위해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15주)
- ③ 임원이나 제자훈련반의 집중교육(10주)

2) 커리큘럼 작성

현대신앙문서로 진행되는 교리교육은 다양한 주제로 준비될 수 있다. 각 교회의 청소년의 상황, 필요, 구성원들의 신앙발달 단계, 학습인지 능력에 따라 12주에서 20주까지 교육시간과 대상에 따라 커리큘럼을 구성하자.

3) 교리교육 시간구성

예배 후 50분 정도의 교육 시간을 확보하자. 또는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50분 정도의 특별교육

시간을 마련하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경우는 집에서 줌으로 소그룹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복습게임을 준비하여 반복적으로 기억시키고, 스토리 구조를 형성해주자.

(수업 진행의 예)

- ① 학생들의 세계이해를 위한 주제로 이야기 나눔
- ② 신앙문서의 본문을 함께 정확히 읽고, 새롭게 발견된 것들, 낯선 단어 등을 질문하기
- ③ 관련된 성경 본문을 직접 찾아 읽어보기
- ④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 언약적 관계에서 정리해보기
- ⑤ 청소년으로서 나의 학업과 오늘의 본문이 제시한 통찰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토론하기
- ⑥ 기독교 세계관적 이야기 틀에서 오늘의 본문을 정리해보기

* 58문은 신앙 고백적 선언들이므로 매주 수업한 내용을 자신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녹음해 보고, 자주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격려.

4. 모범교안

Table 2. Outline of this lesson

<p>○교육대상 : 교회 고등부 학생 소그룹 (시리즈 교육 중 1시간 교육내용)</p> <p>○교육목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세상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본다. 2) 나도 모르게 깔려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파악하고, 성경의 통찰로 재구성하기 3)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음을 배운다. <p>○교육주제: 하나님 형상과 소명</p> <p>○교육범위: 창조 (현대신앙문서 7-12문)</p>
--

1) 청소년의 세계에서 이야기하기

- ①. 우리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 ② 우리 학교의 상황은 안전한가요?
- ③ 학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노력하며 살고 있나요?
- ④ 우리 학교에서 느껴지는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해보세요.
- ⑤ 남은 학교생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10년은 나에게 소망이 있나요?

2) 성경과 현대 신앙문서에서 창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잘 읽어보세요.

Table 3. Statements 7 to 12

<p>창조 (Creation)</p> <p>7.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것도, 지구상의 어떤 권력의 것도 아니다. 사단이나, 운명이나 우연의 것도 아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이다. (시24:1)</p> <p>8. 태초에 성부, 말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형상과 질서를 세우셨다. (창1, 요1:1-14)</p> <p>9.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다. 하늘 위에 별과 해와 달을 두시고 빛깔과 아름다움, 그리고 다양함으로 세상을 만드시어 식물과 동물, 그리고 우리가 살기 적합한 집으로 삼으셨다. 그 세상은 일과 놀이 예배와 경이로움, 사랑과 웃음의 공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셨다. 태초에 만물은 매우 좋았다. (창1-2, 시 19, 33, 104)</p> <p>10.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창조주와 사랑의 관계 안에 살게 되었으며 창조세계를 돌보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돌보는 자로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세상이 발전하고 행복함으로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신다. (창1:26-27; 9:6, 엡4:24, 골3:10, 약3:9)</p>	<p>11. 남성과 여성이나, 미혼자나 기혼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든 피부색깔과 인종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를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다.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촉진하도록, 태어나지 않은 태어나 약한 이들을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이들을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 (갈3:26-28, 행2:5-11, 사1:5-17, 약1:27)</p> <p>12. 역사가 현재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비록 제한적으로 밖에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안에 계셔서 만물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모든 것을 자신이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주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확신은 우리 삶에 의미와 소망을 부여한다.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다. (사45:6-7, 마6:25-34, 눅12:4-7)</p>
--	--

3)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언약적 관계이해)

①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적어보세요.

(예: 세상을 창조하신 이 땅의 주인, 창조자, 우리들을 위해 살 곳을 준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함께 세상을 돌보는 자로 세우신 분,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자신의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

②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돌보는 자로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우리

의 노력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돌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

3) 이 내용을 읽고 '나는 누구인가' 정리해보세요.

예)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이므로 안전하다.

→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 창조 세계와 이웃을 돌보는 자

→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귀하다.

→ 모두가 하나님 형상이고, 세상의 청지기

4) 우리의 학업에 주는 통찰은? 학업의 내용과 방향에 적용해보세요.

예) 학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학업의 내용과 방법,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반영되도록.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웃사랑의 정신에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이웃을 돌보는 방향에서 공부를 진행해야겠다.

5) 결론: 창조에 대한 교리의 내용에 나타나는 기독교 세계관적 구조를 정리해봅시다.

Table 4. Applying the structure of a Christian worldview to School Work

<p>창조: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세상 돌봄의 사명 - 우리의 학업의 목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방향에서 진행해야.</p>
<p>타락: 세상에 들어온 인간 차별, 생명 경시, 심 없음, 거처 없음, 빈부의 차이, 질병의 문제 등 - 우리의 학업을 통해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한 모든 부정과 부족과 차별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며 소명 찾기</p>
<p>구속(회복):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세상을 돌보시므로,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 - 우리의 학업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세상임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창의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일하는 것.</p>

V. 나가는 말

본고는 교회 청소년교육의 대상인 기독교 청소년들이 입시 경쟁적 학업으로 인해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신앙으로 학업을 통합하여, 그들의 일상의 학교생활과 공부하는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는 해석적 교리교육의 시도이다. 청소년기 교리교

육은 세계관 충돌 상황에서 세계관을 구성하는 이야기들의 교체, 재구성으로 학생들의 신앙이 확장되고 성장하도록 돕고, 그들의 소명을 성경적 이야기 안에서 발견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청소년의 학교 상황은 입시 이데올로기를 통한 치열한 경쟁적 상황이지만,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성경적 교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세상의 성공 이야기가 주는 억압과 허영에서 탈출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구성하고, 학업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학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소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교회의 신앙교육은 주일 교회에서의 교육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배움의 과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신 은사대로 소명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보다 포괄적인 전인교육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상황에서 실존적으로 꼭 필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며 교리교육 내용을 형성하고, 그것을 청소년의 삶의 세계에서 성경적 세계관 구조로 형성해주는 해석적 교리교육 수업을 구성해보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교리교육 연구의 한 시도일 뿐이고, 계속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나 방법론적인 면에서 학습자의 현장에 응답하는 삶과 연관된 생기 있는 교리교육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교리교육은 세계관적 이야기를 형성시켜 청소년기 학업의 동기를 발견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러한 시도를 넘어, 계속적으로 의지적 훈련과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르는 교육을 위하여 후속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문규 (2008). James Fowler의 신앙 발달단계에 대한 고찰과 문제점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18. 49-70.
- [Kang, M. K. (2008). Die Betrachtung uber "Stufen des Glaubens" von James Fowler und der Stre-
itpunkt.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8. 49-70.]
- 강문규 (2021). 현대 한국교회 청소년의 기독교 신앙 자아정체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적 책임. **신학과 실
천**. 74. 665-701.
- [Kang, M. K. (2021). Responsibility of Christian Edu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Faith-Based
Self-Identity in Today's Korean Christian Youth. *Theology and Praxis*. 74. 665-701.]
- 강미랑 (2011). 리피르의 Narrative identity 이론의 소그룹 성경공부에서의 적용. **한국개혁신학**. 29. 311-
34.
- [Kang, M. R. (2011). An Application of Ricoeur's Narrative Identity Theory to Bible Study in a
Small Group. *Korea Reformed Theology Society*. 29. 311-34.]
- 강미랑 (2020). 한국교회의 입교교육을 위한 이론적 성찰과 프로그램 개발. **한국개혁신학**. 68. 269-309.
- [Kang, M. R. (2020). A study on the theory and practices for the education of the public profes-
sion of faith. *Korea Reformed Theology Society*. 68. 269-309.]
- 김병재 (2022). 능력주의 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7(1). 90.
- [Kim, B. J. (2022). Christian educational alternatives to Meritocracy Culture -Focused on the
Humanity of Christ. *Faith & Scholarship*. 27(1). 90.
- 김희권 (2008). 입시 경쟁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이해(1) 무한경쟁주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 어떻
게 할 것인가?. **신학사상**. Vol 140. 1-21.
- [Kim, H. K. (2008). A Biblical-Theological Understanding of Competition for College Admission.
Theological Thought. Vol 140. 1-21.]
- 박상진 (2008).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기독교교육논총**. 18. 99-129.
- [Park, S. J. (2008).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8. 99-129.]
- 박상진·김희권·김창환·강영택 (2008).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Park, S. J., Kim, H. K., Kim, C. H. & Kang, Y. T. (2008). *Christian understanding of entrance
examination*. Seoul: Yeoyeong Communication.]
- 박원호 (1996).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사.
- [Park, W. H. (1996). *Development of Faith and Christian Education*. Seoul: Presbyterian Uni-

- 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ublishing House.]
- 변영인 (2013). 청소년의 영성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20. 154-186.
- [Byun Y. I. (2013). Impact of Spirituality on Self-Directed Learning for the Adolesc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0. 154-186.]
- 사미자 (2017). **인간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Sa, M. J. (2017). *Human Development and Christian Education*. Seoul: Korean Presbyterian Publishing House.]
- 심재승·이대부속초등학교 (2012). **기독교교육선언: 교사가이드북**. 파주: 교육과학사.
- [Shim, J. S. & Ewha Womans University Elementary School (2012). *Christian Education Declaration: Teacher Guide Book*. Paju: Kyoyookbook.]
- 심재승 (2018).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2). **Worldview**. Vol. 31. 5.
- [Shim, J. S. (2018). Our World Belongs to God(2). *Worldview*. Vol. 31. 5.]
- 심재승 (2021).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1) **Worldview**. MAY (<https://theworldview.co.kr/archives/16435>, 2022년 4월26일 접속)
- [Shim, J. S. (2021). A Christian Worldview for Children(1) *Worldview*. MAY. (<https://theworldview.co.kr/archives/16435>, Approched in April, 2022.)]
- 양승준 (2013). 청소년 신앙형성을 위한 입교교육과정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39. 161-189.
- [Yang, S. J. (2013). A study on confirmation process for faith formation in adolescenc.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9. 161-189.]
- 양금희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택트(ontact)”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 논총**. 68. 41-76.
- [Yang, G. H. (2021). A Study on “Ontact”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Corona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8. 41-76.]
- 이은아 (2015). 인성교육의 대안과 방향: ‘경제적 인간’에서 ‘호혜적 인간’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235-255.
- [Lee, U. A. (2015). Criticisms of and Alternatives to Character Education: From Homo-Economicus To Homo-Reciprocan.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6-4. 235-255.]
- 전병재 (2019). 개혁주의 세계관으로 바라본 학업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 논총**. 59. 415-447.
- [Jeon, B. J. (2019). Academic Performance in View of the Reformed Worldview and the Tasks of Christian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9. 415-447.]
- 전병재 (2019). 청소년의 소명정체성 개념화와 청소년 사역: 청소년과 회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 52. 135-169.

- [Jeon, B. J. (2019). Conceptualizing Youth Calling Identity for Youth Ministr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People and the Congregation. *The gospel and praxis*. 52. 135-169.]
- 정성구 (2010).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용인: 킹덤북스.
- [Jeong, S. G. (2010). *The Thoughts and Life of Abraham Kuyper*. Yongin: Kingdombooks.]
- 정일웅 (2011). **교회교육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Jung, I. W. (2011). *Church Pedagogy*. Seoul: Chongshin University Press.]
- 최용준 (2021). 아브라함 카이퍼의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6. 309-326.
- [Choi, Y. J. (2021). A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Science and Faith focusing on the Thought of Abraham Kuyper. *Faith & Scholarship*. 26. 309-326.]
- 최진성 (2022).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청소년을 위한 신앙교육 연구: 신앙공동체 이론을 중심으로. **ACTS신학저널**. 51. 145-177.
- [Choi, J. S. (2022). A Study on Faith Education for Youth in the Post-Corona Era: Focusing on the Faith Community Theory. *ACTS Theological Journal*. 51. 145-177.]
- 하희승 (2009). 한국청소년의 학업 중압감 사례와 성경적 상담을 통한 신앙지도. **신학과 실천**. 18. 371-405.
- [Ha, H. S. (2009). A Religious Guidance through Pastoral Counselling of Teenager's Stresses Caused by Academic Pressure. *Theology and praxis*. 18. 371-405.]
- 한상진 (2014) 교회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의 중요성. **기독교교육논총**. 40. 167-197.
- [Han, S. J. (2014). The Importance of Personality Education for Church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0. 167-197.]
- 김희정 역 (2012). **잃어버린 기독교의 보물, 교리문답교육**. Donald. Van D. (2000). *Rediscovering Catechism: The Art of Equipping Covenant Children*. 서울: 부흥과 개혁사.
- [Kim, H. J. (2012). *Rediscovering Catechism: The Art of Equipping Covenant Children*. Seoul: Booheunggwa Kaehyeogsa. Trans. Donald. Van D. (2000). *Rediscovering Catechism: The Art of Equipping Covenant Children*. Phillipsburg, New Jersey: P & R Publishing.
- 백지윤 역 (2018). **오늘이라는 예배**. Warren. T. H. (2016). *Liturgy of the Ordinary: Sacred Practices in Everyday Life*. 서울: IVP.
- [Baek, J. Y. (2018). *Liturgy of the Ordinary: Sacred Practices in Everyday Life*. Seoul: IVP. Trans. Warren, T. H. (2016). *Liturgy of the Ordinary: Sacred Practices in Everyday Life*. Downers Grove, Illinois: IVP Books.]
- 심재승 역 (2008). **현대신앙문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 Grand

- Rapids, Michigan: FAITH ALIVE.
- [Shim, J. S. (2008). *Our World Belongs to God*. Grand Rapids, Michigan: FAITH ALIVE Christian Recources. Trans. Synod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2008). *Our World Belongs to God*. Grand Rapids, Michigan: FAITH ALIVE Christian Recources.]
- 윤종석 역 (2011). **세계관은 이야기다**. Goheen, M. W. & Bartholomew, C. G. (2004). *The True Story of the Whole World: Finding Your Place in the Biblical Drama*. 서울: IVP.
- [Yun, J. S. (2011). *The True Story of the Whole World: Finding Your Place in the Biblical Drama*. Seoul: IVP. Trans. Goheen, M. W. & Bartholomew, C. G. (2004). *The True Story of the Whole World: Finding Your Place in the Biblical Drama*.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조계광 역 (2010). **복음에 뿌리를 내려라**. Packer, J. I. & Parrett, G. A. (2010). *Grounded in the Gospel: Building Believers the Old-Fashioned Way*. 서울: 생명의 말씀사.
- [Choi, G. G. (2010). *Grounded in the Gospel: Building Believers the Old-Fashioned Way*. Seoul: Word of Life Press. Trans. Packer, J. I. & Parrett, G. A. (2010). *Grounded in the Gospel: Building Believers the Old-Fashioned Wa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 Fowler, J. W. (1981).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 Heitink, G. (1999). *Practical Theology: History · Theory · Action Domain*.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 Schippers, K. A. (1982). *Werklpaats catechese : doelbepaling en organisatie jongerencatechese*. Kampen: Kok.
- “학업 스트레스에 죽고 싶다는 청소년들…행복도 OECD ‘꼴찌’”, Newsquest, 김동호기자 (2019.12.24) Retrieved from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20> (2022.8.5)
- “학교 밖 청소년 46% “학교 의미 없어” 퇴학 결정” Global Economy,유명현 기자(2020.1.20) https://www.g-enews.com/article/General-News/2020/01/202001221610558592f67c3fc824_1. (2022.8.5)
- “[에듀인 현장] 매년 학생 5만명 학교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데...” Eduinnews, 최우성 경기 대부분 교사 (2020.6.16) Retrieved from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

기독교청소년의 학업과 신앙의 통합을 위한 해석적 교리교육연구

A Study of Interpretive Catechesis for the Integration of Schoolwork and Faith of Christian Youth

강미랑 (로템나무교회, 개혁주의신앙정체성 교육센터장)

논문초록

본 논문은 세상에 만연한 세계관으로 인해 학업이 왜곡되고, 그로부터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로 고통하며 신앙에서 멀어지는 현실에서, 교리교육으로 새로운 세계관, 소망의 이야기를 심어주는 교회의 교육을 연구한다. 성경의 이야기 해석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에 따라 자신들의 학업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신앙으로 공부하며 청소년기의 전인적 신앙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해석적 교리교육방법을 시도한다.

신앙과 학업의 이분법적 이해에서 학업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 세계관 이해로 학생들의 학업의 세계를 신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또한 신앙의 포괄적 이해로 기독교청소년들의 학업과 삶의 모든 관계들을 신앙의 체계 안에서 전인적으로 통합하며 정체성이 발달해 나가도록 돕는다.

청소년기 교리교육은 성경으로부터 구성된 교리들을 학생들의 일상의 관심사와 연결하여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의 교리교육은 세계관적, 인생관적 해석이 필요하고,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삶의 과제인 학업을 성경적 교리구조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한국교회가 교단별료, 또는 연합하여 청소년을 위한 오늘의 교리교육서를 준비하여 그들이 학업 하는 현재와 꿈꾸는 미래를 위한 신앙의 기둥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라며, 교회의 교리교육에 있어서 개혁신앙의 역사적 신앙교육서들(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도르트 신조 등)을 토대로 하되, 오늘의 언어와 청소년의 상황으로 적용된 교리교육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우선 그 한 모범으로 화란 개혁교회의 후예인 미국 CRC교단이 역사적 개혁교회의 신앙교육서들을 기초하여 21세기 현대적 이슈들에 대한 성경적 통찰을 담아낸 [현대 신앙 문서]를 오늘의 신앙교육서로 채택하여 활용하는 한 수업계획서를 제시해보았다.

주제어: 청소년, 학업, 신앙, 소망, 해석적 교리교육, 기독교세계관